

아직도 5명은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리뷰 2017

⑦ 세월호 3년만에 인양

침몰한지 1073일만에 수면위로 미수습자 9명 중 4명 유해 발견 해수부 유해 은폐 논란 오점 남겨 참사 진실규명·재발방지 과제로

세월호 선체가 지난 3월 23일 물 위로 올라왔다. 침몰한 지 1073일 만이다. 국민은 세월호 표면의 갈라진 흔적과 녹을 보며 지난 3년의 시간을 되돌아봤다. 세월호의 인양에도 현재까지 5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해수부의 유해 은폐 논란은 유가족과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은 아직 진행중이다. 미수습자, 재발방지대책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수면위로 올라온 세월호=지난 3월 23일 새벽 3시45분, 침몰한 지 3년 만에 세월호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음날인 24일 오후에는 제강비지선 2대에 묶여 3km 떨어진 반잠수식 선박에 도착했다. 25일에는 세월호 선체 전체가 최초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예초 해양수산부는 4월 6일에 세월호를 육상에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월호 무게를 잘못 측정하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세월호 무게를 줄이고자 선체에 구멍을 뚫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우여곡절 끝에 트랜스포터를 456대에서 600대로 늘려 세월호를 들어올렸다. 4월11일 세월호 밑에 있던 모틀 트랜스포터를 모두 꺼내면서 세월호 육상거치 작업이 마무리됐다.

◇미수습자 4명 유해 발견=지난 5월 5일 첫 번째로 발견된 유해는 선체 내부가 아닌 세월호 침몰해역 수색에서 나왔다. 감식결과 단원고 교사 고창석씨로 확인됐다.

이어 5월10일 세월호 4층 선미 좌현 객실 쪽에서 사람뼈로 추정되는 뼈조각을 발견했다. 이날 세월호 선체에서 유골이 처음으로 발견돼 미수습자 가족들은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됐다. 5월13일에는 조은화양의 유해를 찾았다.

5월16일에는 세월호 3층 객실 중앙부 우현에서 단원고 허다운양의 유골을 수습했다. 5월22일에는 3층 선미 좌현 객실에서 가장 안전한 형태의 유해를 찾았다. 옷에서는 미수습자인 이영숙씨의 신분증



지난달 18일 미수습자 가족이 떠난 목포신항에 세월호만 덩그러니 거처돼 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미수습자 가족들은 모두 떠났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와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의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 나왔고 6월5일 DNA 분석결과 이씨로 최종 확인됐다. 이들 4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은 참사 발생한 지 3년이 지나서야 그토록 원하던 '희생자 가족'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7개월 가까이 진행된 수색에도 미수습자인 단원고 남현철·박영인군·양승진 교사, 권재근씨와 아들 혁규 군 등 5명은 끝내 가족의 품 돌아오지 못했다. 결국 남은 미수습자 가족들은 지난달 18일 목포신항을 떠났다. 이들은 떠나기 이틀전 기자회견을 열고 "비통함에 힘들지만 이제는 가슴으로 묻기로 했다"면서 국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목포신항에서 철수했다.

◇해양수산부 유해 은폐 논란과 남은 과제=지난달 17일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신항을 떠나기 하루 전 사람 뼈로 추정되는 1점의 뼈가 발견됐음에도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측은 이 사실을 세월호 선체 조사위와 미수습자 가족 등에게 다투어 지난 22일 오후에야 뒤늦게 알린 사실이 드러나 은폐 논란이 일었다.

해수부의 고의적인 은폐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일부 세월호 유가족들이 "뼈가 발견될 때마다 중계방송하듯 알리진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알려졌다.

또, 세월호 유가족인 단원고 조은화·허다운 양의 가족이 은폐를 주도한 관계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김현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 등의 보직해임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유가족들 역시 "악의적 은폐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의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다. 향후 추가 수색과

선체 직립, 재발방지대책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한편, 지난달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세월호 2기 특조위가 출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앞으로 세월호 관련 남은 과제들의 해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노인회관 건립 본격화

내년 상반기 공사 2019년 준공

광주노인회관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노인회관 건립부지인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제1주차장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7월 건립부지와 시설설계 예산을 확보했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초 실시설계를 한 뒤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에 들어가 2019년 준공할 예정이다.

광주노인회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1960㎡) 규모로, 노인대학, 강당, 휴식공간, 노인취업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광주시는 노인회관 신축으로 광주 1300여개 경로당, 자치구별 지회 간 협력, 건강프로그램 지원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노인회관 신축 사업은 기존 남구 서동 건물 노후화로 논의가 시작됐다. 기존 남구 서동에 있던 회관건물이 건립 35년이 지나면서 안전문제, 공간 부족, 교통 편의성 문제 등이 불거져 신축 논의가 시작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노인회관이 신축되면 어르신 복지 증진은 물론 여가·문화 활동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늘어난 복지 수요에 맞춰 관련 정책을 늘리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에는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아깝게 탈락한 계층까지 보호하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를 실시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중앙공원을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요”

내일 광주 초중고 정책 아이디어 우수제안 발표회

“광주 중앙공원을 놀이공간으로 만들고,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멋지게 디자인 해요. 김치타운에는 김치나라 거리를 조성하고 눈높이를 낮춘 광주시어린이홈페이지도 만들어요”

광주지역 학생들이 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광주시는 ‘광주형 직접민주주의’ 일환으로 ‘2017 광주 초·중·고등학생 정책 아이디어 우수제안 발표회’를 오는 27일 시청사 2층 무대에서 연다.

이번 발표회는 학생들이 ‘내가 광주시장이라면 광주의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제안한 아이디어 57건 중 예선을 통과한 초·중·고 분야별 7각씩 총 21건에 대해 학생이 직접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초등부에서 어린이들의 감성이 묻어나는 정책 아이디어가 많았다. ‘중앙공원 활용 놀이공간 조성’(임은서·금부초 3년), ‘시장님과 미팅하는 날’(이준상·영주초 5년), ‘김치타운 김치나라 거리 만들기’(김채현·침단초 3년) 등 어린이의 순수함이 담긴 정책이 쏟아졌다.

또 중등부에서는 ‘버스요금 정류장 수에 따라 차등’(정지현·동명중 3년), ‘청소년 활동 존 지정 운영’(박지혜·서재은·봉선중 1년) 등과 고등부에서는 ‘송정역 시장을 활용한 광주 홍보 활성화’(이소은·상일여고 1년) 등 수준 높은 정책도 많았다.

이들 학생들의 제안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시 교육청 장학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점수로 대상 3편,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9편을 결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광주시장 시상과 함께 대상 각 100만원, 금상 각 70만원, 은상 각 50만원, 동상 각 30만원의 부상금을 수여하며,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년 부터 시 소관부서에서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가 광주의 내일을 이끌어 갈 미래세대에게 시장 직접 참여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그들이 실제 원하는 더 나은 광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준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청사 5층 미술공간 탈바꿈... ‘갤러리 씬’ 작품 29점 전시

광주시청사 5층이 미술공간을 전시하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광주시는 25일 “청사 5층 문화체육관광실 복도를 전시공간인 ‘갤러리 씬’으로 꾸몄다”고 밝혔다.

총 길이 80m인 이 공간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소장 작품 29점을 전시한다. 작품은 3개월마다 교체할 예정이다.

첫 전시에는 조근호의 ‘도시이야기’(서양화), 정명돈의 ‘우후’(한국화), 정상섭의 ‘푸른달빛’(서양화), 정준표의 ‘축제’(조각) 등 지역 작가의 회화와 조각품을 선보인다.

광주시는 시청사 행정동 간 연결통로인 이곳을 문화관광체육실 이미지를 반영하고 휴식공간을 제



공하기 위해 전시공간으로 조성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평창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캐릭터 윈터 올림픽 페스티벌

평창 ON, 모두 ON, 드림 ON!

2017.12.30(토) ~ 2018.01.01(월) 새벽 2시 서울광장

캐릭터와 함께하는 새해 카운트다운 2017.12.31(일) 24:00